



백신 따라가는 펀드 자금

1. 미국과 유럽은 주식펀드로 자금 유입

- 작년말부터 코로나19 백신이 보급되면서, 백신 접종률이 국가별로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
- 백신접종률이 높은 미국은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강해지면서, 미국 주식 ETF를 중심으로 자금 유입 이어짐.
- 상대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높은 유럽의 주식 펀드와 ETF도 자금 유입 규모 증가

2. 신흥국 주식펀드는 자금 유입 규모 축소

- 선진국에 비하여 백신접종 속도가 느린 신흥국과 아시아(일본제외)의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는 4월부터 자금 유입 규모가 줄어들었음
- 백신 확보 상황에 따라 경제 회복 속도가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신흥국에 대한 투자 주춤. 신흥국주식 ETF는 4월 마지막주에는 순유출로 전환.

3. 신흥국 펀드 안에서 한국과 대만 선호

- 신흥국주식 펀드 안에서 중국의 비중은 작년 6월 29.4%까지 높아졌으나, 이후로 점차 낮아져 3월에는 27.2%로 떨어졌음
- 지난 9개월 동안 신흥국 주식 펀드 안에서 평균 비중은 한국 2.0%, 대만 1.7%, 인도 1.6%가 증가

1. 미국과 유럽은 주식펀드로 자금 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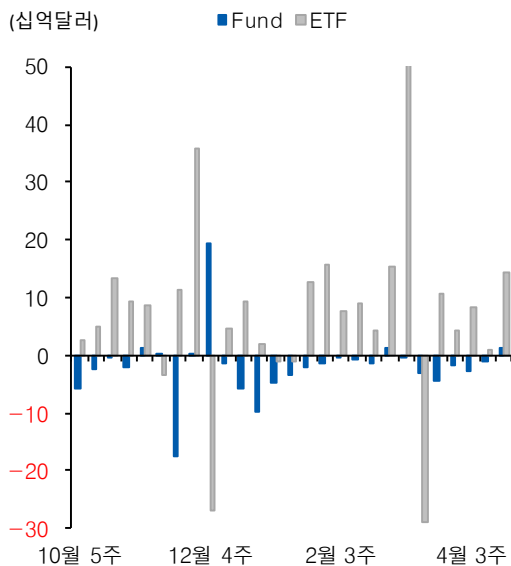
코로나 19 팬데믹은 전세계 경제를 강타하였다. 코로나 19의 충격은 국가별로 확진 비율과 사망률, 봉쇄 상황 등에 차별적인 영향을 주었다. 작년말부터 코로나19 백신이 보급되면서, 백신 접종률이 국가별로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1차 백신 접종 기준으로 가장 접종 속도가 빠른 나라는 이스라엘(1차 62.5%, 2차 58.9%)이다. 영국과 미국은 1차 접종 기준으로 50.6%와 43.7%를 기록하고 있다. 유럽 국가 중에서는 프랑스 22.9%, 독일 26.7%가 1차 접종을 하였다. 반면 일본과 한국은 각각 2.0%와 6.6%가 1차 접종을 한 상태이다.

백신접종률이 높은 미국은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강해지면서, 미국주식 ETF를 중심으로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 주식 시장의 강세로 이익실현성 환매가 있었던 미국주식펀드의 자금 유출 규모는 점점 줄어들어 순유입 전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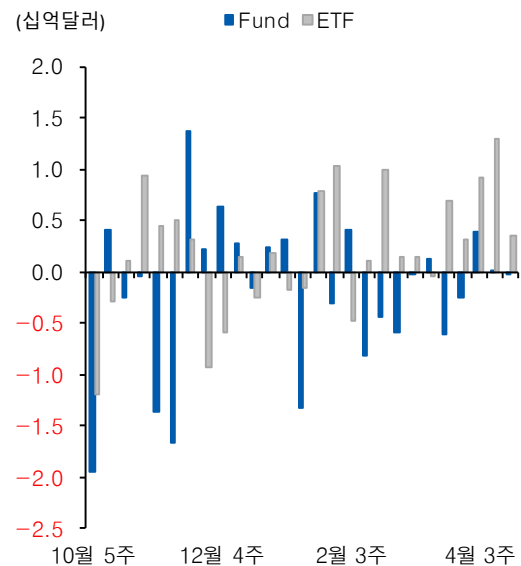
작년 하반기부터 자금 유출이 있었던 유럽주식펀드는 4월부터 유럽주식 ETF를 중심으로 자금 유입이 늘어나고 있다.

[차트1] 백신 접종이 빠른 미국의 주식ETF는 자금 유입 지속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유럽의 주식펀드와 ETF는 자금 유입 증가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신흥국 주식펀드는 자금 유입 규모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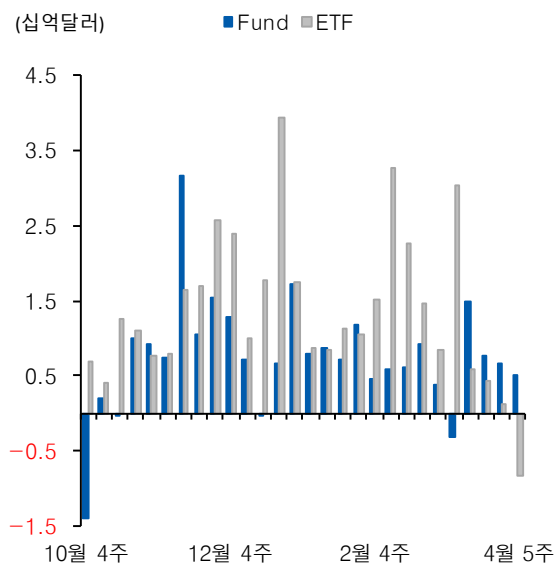
선진국에 비하여 백신접종 속도가 느린 신흥국과 아시아(일본제외)의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는 4월부터 자금 유입 규모가 줄어들었다.

대부분의 신흥국은 백신을 조기에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백신 접종률도 낮다. 게다가 코로나19 변이 백신이 생기면서 코로나 확산 속도가 빨라진 브라질과 인도는 의료 붕괴 상황까지도 걱정하는 상황이 되었다.

백신 확보 상황에 따라 경제 회복 속도가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신흥국에 대한 투자는 주춤한 상황이다. 세계 경제 회복 기대감으로 작년 말부터 자금 유입이 이어지던 신흥국 주식펀드는 4월부터 자금 유입 규모가 줄어들었다. 신흥국주식 ETF는 4월 마지막주에는 순유출로 전환되었으며, 신흥국 주식펀드는 4주째 순유입 규모가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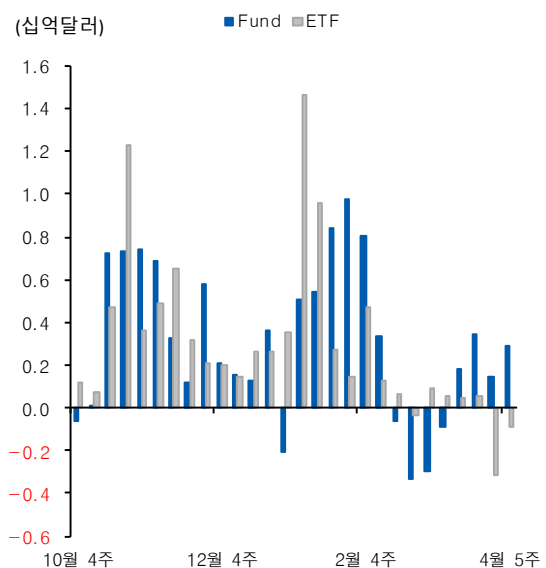
아시아(일본제외)주식 ETF는 2주 연속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으나, 아시아주식펀드는 4주 연속 순유입을 유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선진국 경제가 살아나면서, 신흥국 관련 펀드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차트3] 백신 접종이 상대적으로 느린 신흥국주식펀드와 ETF는 유입 규모 감소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아시아(일본제외)주식펀드와 ETF는 3월 중순부터 자금 유입 규모 축소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3. 신흥국 펀드 안에서 한국과 대만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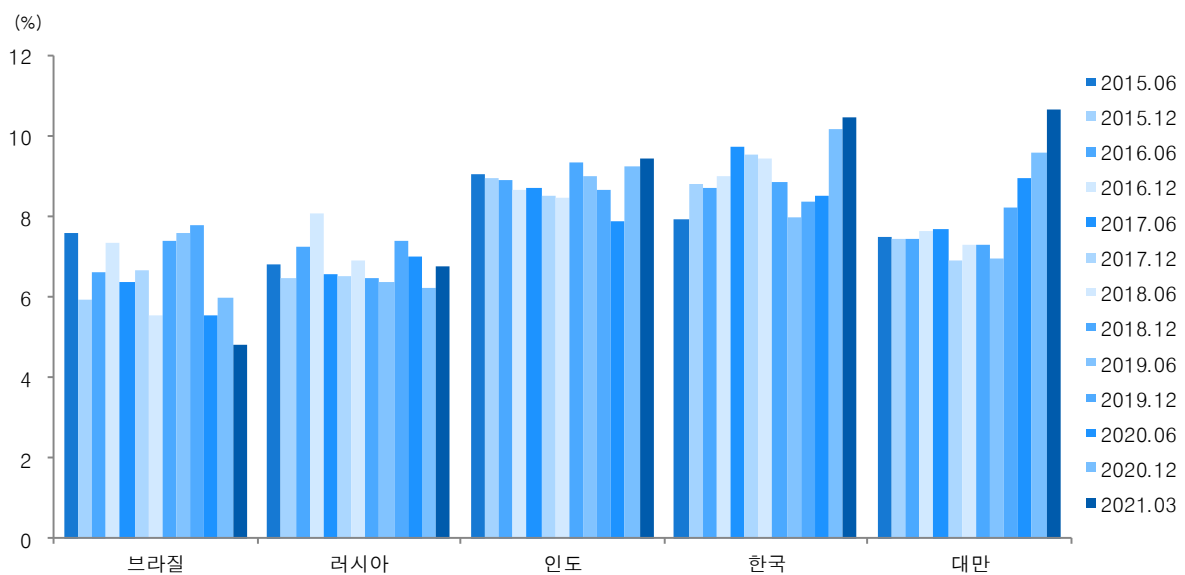
작년 하반기부터 신흥국 주식펀드 안에서는 대만과 한국에 대한 선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신흥국 주식펀드 안에서 평균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중국(27.2%)이다. 그 뒤를 대만(10.7%)과 한국(10.5%)이 따르고 있다.

신흥국 주식 펀드 안에서 중국의 비중은 작년 6월 29.4%까지 높아졌으나, 이후로 점차 낮아져 3월에는 27.2%로 떨어졌다. 작년 6월 이후 9개월 동안 브라질과 러시아는 신흥국 펀드 안에서 편입 비중이 각각 0.7%와 0.2%가 줄어들었다.

반면, 지난 9개월 동안 신흥국 주식 펀드 안에서 평균 비중은 한국 2.0%, 대만 1.7%, 인도 1.6%가 증가하였다. IT 등 세계 경제 회복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한국과 대만에 대한 투자 심리는 빠르게 호전되고 있다.

선진국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잘 해결해나가고 있으나, 신흥국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정치적 위기를 겪는 상황도 생겨나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신흥국 간 차별화가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는 유리한 상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차트5] 신흥국 펀드 안에서는 한국과 대만 비중 증가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